

재가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양 경 미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를 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게 되었고 2005년의 노인인구 비율이 9.0%,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우리사회는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으며, 가족내에서의 노인부양은 여성이 70-80%를 담당하여 왔다(Kim & Han, 1997).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여성들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부양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Seo, 2000). 이러한 부담감은 가족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가족의 역할기능에 대한 가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재적으로 노인학대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노인학대에 관한 전국적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학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노인이 가족이나 자녀에 의해 학대나 방치를 당한 비율은 8.2%(Cho, Kim & Kim, 1999), Kwon(2004)의 연구에서는 30.8%에 해당하는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eo(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5.2%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노인학대 발생빈도와 목격실태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유발되는 노인학대는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은폐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 (Seo, 2000) 노인이 학대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노인학대 문제에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인이 학대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참거나 학대 상황을 피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1999). 노인이 학대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 학대상황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Cho et al., 1999)과 같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 증상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yer, Pavlik, Murphy와 Hyman(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학대나 방임을 당하게 되면 우울이 높았으며, 우울증은 노인이 그들 자신을 돌보는데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언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적극적 대처를 하면 학대 상황이 줄어들거나 학대가 재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Comijs, Pot, Smit, Bouter, & Jonker,

주요어 : 노인학대,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

*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발췌한 것임

1)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4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23일

1998) 학대상황에서 노인의 대처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대를 당한 노인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Comijs, Pennix, Knipsheer, & van Tilburg, 1999), 스트레스 경험 자체만으로도 신체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학대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이 학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를 파악하고, 노인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학대결과인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간호중재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간호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의 학대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 학대, 대처방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학대정도, 대처방안 정도, 자아존중감 정도, 우울 정도, 신체화 정도를 확인한다.
- 노인학대가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노인학대,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노인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용어의 정의

- 노인학대 :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적 행동 또는 반복적 행동이나 적절하지 않는 행동(Action on Elder Abuse, 2000)으로 본 연구에서는 Seo(2000)가 개발한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대처방안 : 대처는 스트레스원(stressor)을 예방하고, 제거하고, 약화시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가장 덜 고통스런 방법으로 견디어 내려는 노력으로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건강한 또는 건강하지 못한 모든 노력을 포함(Mathney, Aycok, Pugh, Curlette, & Silva-Cannella, 1986)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Yang(1995)이 개발한 노인용 대처방안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자아존중감 :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Coopersmith, 1967)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신체화 : 신체화는 기질적이나 신체적 손상없이 심리적 갈등에 의하여 기질적으로 표현되는 신체적인 증상을 뜻하며(Goldseon & Glanze, 1986),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 (1977)가 개발한 Symptom Check List 90(revised)에서 신체화 12문항을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학대, 대처방안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수원, 광주, 목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노인 499명이었다.

연구 도구

• 노인학대 도구

노인학대 도구는 Seo(2000)가 개발한 학대유형의 문항에 Kim과 Cho(1998)가 사용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학대의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적 학대 10문항, 언어적 학대 6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재정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였으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90, 언어적 학대 .89, 신체적 학대 .88, 재정적 학대 .79, 방임 .85로 나타났다.

• 대처방안 도구

학대에 대한 노인의 대처방안 도구는 Yang(1995)이 개발한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도구 중 노인용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다. 대처 유형별로 공격적 대처 4문항, 적극적 대처 3문항, 소극적 대처 4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처유형별 점수가 높은 것은 각 유형별 대처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공격적 대처 .77, 적극적 대처 .61, 소극적 대처 .6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공격적 대처 .75, 적극적 대처 .63, 소극적 대처 .81로 나타났다.

● 학대결과 도구

- 자아존중감 도구 :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on(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 우울 도구 : 우울도구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을 Jung 등(199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30문항으로 우울 점수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다.
- 신체화 도구 : 신체화 도구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Symptom Check List 90(Revised) (SCL-90R) 문항 중에서 Kim, Kim과 Won(1984)이 제작한 척도로 신체화와 관련된 1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심하다”가 5점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 14일부터 9월 14일 까지 서울, 수원, 전라남도 광주, 목포시에 소재한 역 주변 광

장, 노인복지관, 공원,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노인을 직접 만나 연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구두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노인이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자가 면담방법 및 설문지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설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4명의 간호학 석사 학위 소지자와 예비조사에 참가하여 충분한 훈련을 거친 9명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및 연구자가 직접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1:1 개별 질문을 하여 총 650부의 설문지를 수집했으나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또는 노인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연구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99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들에 대한 서술통계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대 정도, 대처방안 정도,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대처방안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인학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학대결과인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인학대와 대처방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7.5%(287명), 여자 42.5%(21명)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70~79세가 48.3%(241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75.42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48.3%(241명), 사별 노인이 45.9%(229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35.7%(178명), 초등학교 졸업 32.5%(162명)이었고, 노인의 한달 생활비는 30만원 이하가 52.6%(133명), 31-50만원이 21.7%(55명)이었으며, 생활비 마련은 자녀의 지원이 40.7%(107명)로 가장 높았고 연금 및 재산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40.3%(106명)로 나타났다.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수는 3-5명이 42.3%(211명), 2명이 25.7%(128명)이었으며, 평

공동거 가족 수는 4명이었다. 가족 형태는 노인 혼자서와 아들 내외가 같이 사는 경우 28.9%(144명), 노인 부부와 아들 내외가 같이 사는 경우 23.2%(116명), 노인부부만 사는 가족은 22.4%(112명)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주부양자는 배우자가 29.9%(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29.5%(147명), 며느리 27.5%(137명)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 정도

노인이 자각하는 학대경험의 전반적인 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학대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노인학대 총합은 5점 만점에 1.42점으로 중간치 이하 점수를 보여 재가 노인의 학대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1.6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방임 1.49점, 언어적 학대 1.40점, 재정적 학대 1.36점, 신체적 학대가 1.0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했을 때 노인의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가 5점 만점에 3.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적극적인 대처 1.94점, 공격적 대처 1.69점으로 노인들이 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결과로 살펴본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6.91점으로 보통 이상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30점 만점에 14.75점으로 보통의 우울을 지녔으며, 신체화 정도는 60점 만점에 22.22점으로 스트레스를 몸으로 표현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결과에 대한 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

노인학대 결과에 대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 번째 회귀식에서 노인학대 5개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격적 대처방안을 종속변수

로 하는 노인학대 유형별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1.9%, F 통계량이 12.53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공격적 대처에 5개 독립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공격적 대처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언어적 학대(β .389), 재정적 학대(β .183), 정서적 학대(β -.187)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공격적 대처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언어적 학대로, 언어적 학대를 당할수록 공격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의 5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9%, F 통계량이 3.77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적극적 대처에 5개 독립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적극적 대처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는 언어적 학대(β -.245)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언어적 학대를 적게 당할수록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의 5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4.8%, F 통계량은 50.45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소극적 대처에 5개 독립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소극적 대처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로는 정서적 학대(β .474), 방임(β .223), 재정적 학대(β .106), 신체적 학대(β -.144), 언어적 학대(β -.1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소극적 대처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노인학대 5개 유형, 대처방안 3개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8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7.9%, F 통계량은 34.789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정서적 학대(β -.668), 재정적 학대(β .226), 소극적 대처(β -.207), 신체적 학대(β =-.133), 언어적 학대(β .120)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8개의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2.6%, F 통계량은 26.078로 나타났다. 우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소극적 대처(β .394), 방임(β .190), 언어적 학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elder abuse, coping strategies, consequence of elder abuse (N=4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Obtained range	Possible range
Elder abuse	Emotional abuse	1.68± .70	1.00- 3.90	1.00- 5.00
	Verbal abuse	1.40± .65	1.00- 4.67	1.00- 5.00
	Financial abuse	1.36± .53	1.00- 3.71	1.00- 5.00
	Physical abuse	1.06± .23	1.00- 2.57	1.00- 5.00
	Neglect	1.49± .65	1.00- 3.63	1.00- 5.00
	Total	1.42± .47	1.00- 3.21	1.00- 5.00
Coping strategies	Aggressive coping	1.69± .80	1.00- 5.00	1.00- 5.00
	Positive coping	1.94± .85	1.00- 5.00	1.00- 5.00
	Passive coping	3.06± 1.18	1.00- 5.00	1.00- 5.00
Consequence of Elder abuse	Self-esteem	26.91± 5.32	12.00-39.00	10.00-40.00
	Depression	14.75± 8.05	1.00-30.00	0.00-30.00
	Somatization	22.22± 7.23	12.00-60.00	12.00-60.00

<Table 2>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oping strategy and consequence of elder abuse (N=499)

Variables	β	R ²
Aggressive coping		
Emotional abuse	-.187	.119
Verbal abuse	.389	
Financial abuse	.183	
Physical abuse	.037	
Neglect	-.053	
F(p)	12.537(.000**)	
Positive coping		
Emotional abuse	-.013	.039
Verbal abuse	-.245	
Financial abuse	.031	
Physical abuse	.072	
Neglect	.051	
F(p)	3.777(.002**)	
Passive coping		
Emotional abuse	.474	.348
Verbal abuse	-.140	
Financial abuse	.106	
Physical abuse	-.144	
Neglect	.223	
F(p)	50.457(.000**)	
Self-esteem		
Emotional abuse	-.668	.379
Verbal abuse	.120	
Financial abuse	.226	
Physical abuse	-.133	
Neglect	.085	
Aggressive coping	.010	
Positive coping	.066	
Passive coping	-.207	
F(p)	34.789(.000**)	
Depression		
Emotional abuse	.114	.326
Verbal abuse	-.156	
Financial abuse	.024	
Physical abuse	.020	
Neglect	.190	
Aggressive coping	.149	
Positive coping	-.010	
Passive coping	.394	
F(p)	26.078(.000**)	
Somatization		
Emotional abuse	.224	.331
Verbal abuse	-.005	
Financial abuse	-.039	
Physical abuse	-.006	
Neglect	.382	
Aggressive coping	.157	
Positive coping	-.041	
Passive coping	-.035	
F(p)	27.751(.000**)	

(β -.156), 공격적 대처(β .149)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소극적 대처로 나타났다.

신체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8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3.1%, F 통계량은 27.751로 나타났다. 신체화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방임(β .382), 정서적 학대(β .224), 공격적 대처(β -.157)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화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방임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결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인과효과

노인학대 결과에 대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각 연구변수들이 학대결과로 살펴본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로분석 모형 <Figure 1>이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극적 대처,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소극적 대처를 통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처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언어적 학대나 방임을 당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공격적 대처, 소극적 대처, 언어적 학대, 방임이며 간접효과를 보이는 변수들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이 있다. 특히,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언어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직접효과로 노인이 언어적 학대를 받으면 우울이 낮아지고 간접효과로는 노인이 언어적 학대를 받았을 때 공격적 대처를 하면 우울을 높아지는 반면 소극적 대처를 하면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방임을 당하면 우울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처를 통해서도 우울이 높아졌다.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노인이 소극적 대처나 공격적 대처를 하는 경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매개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β .187)가 공격적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β -.028)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 학대는 두 가지 경로의 간접효과(β .0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적 대처를 통해 우울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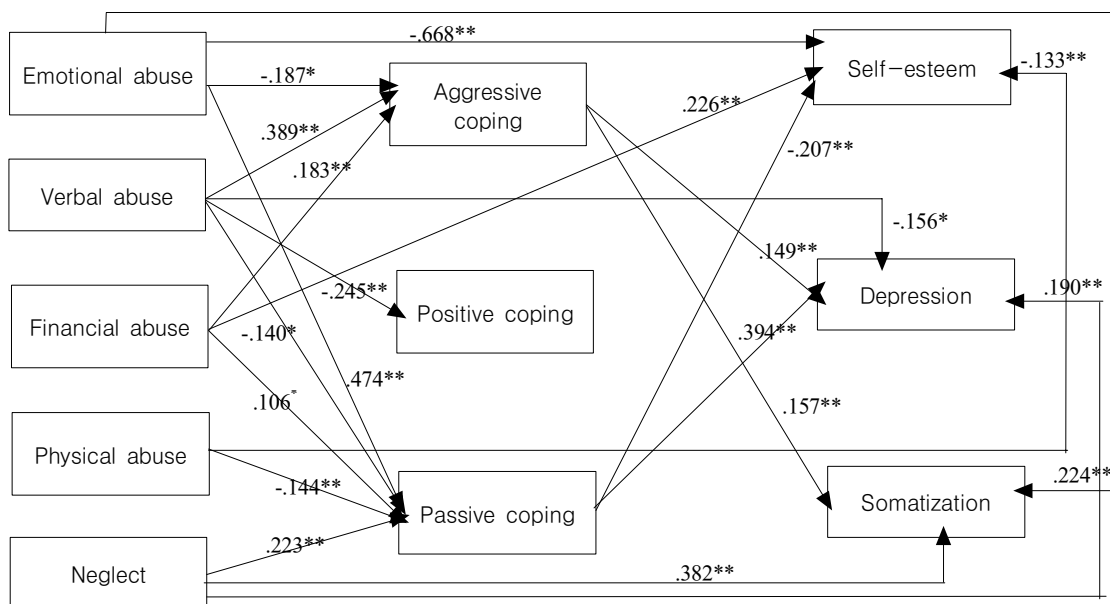
〈Table 3〉 Effect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somatization

(N=499)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lf-esteem			
Aggressive coping	-	-	-
Positive coping	-	-	-
Passive coping	-.207	-	-.207
Emotional abuse	-.668	EA→PaC→Self-esteem (.474)×(-.207)=-.098	-.766
Verbal abuse	-	VA→PaC→Self-esteem (-.140)×(-.207)=.029	.029
Financial abuse	.226	FA→PaC→Self-esteem (.106)×(-.207)=-.022	.204
Physical abuse	-.133	PA→PaC→Self-esteem (-.144)×(-.207)=.030	-.103
Neglect	-	N→PaC→Self-esteem (.223)×(-.207)=-.046	-.046
Depression			
Aggressive coping	.149	-	.149
Positive coping	-	-	-
Passive coping	.394	-	.394
Emotional abuse	-	EA→AC→Depression EA→PaC→Depression (-.187)×(.149)+(.474)×(.394)=.159	.159
Verbal abuse	-.156	VA→AC→Depression VA→PaC→Depression (.389)×(.149)+(-.140)×(.394)=.003	-.153
Financial abuse	-	FA→AC→Depression FA→PaC→Depression (.183)×(.149)+(.106)×(.394)=.069	.069
Physical abuse	-	PA→PaC→Depression (-.144)×(.394)=-.057	-.057
Neglect	.190	N→PaC→Depression (.223)×(.394)=.088	.278
Somatization			
Aggressive coping	.157	-	.157
Positive coping	-	-	-
Passive coping	-	-	-
Emotional abuse	.224	EA→AC→Somatization (-.187)×(.157)=-.029	.195
Verbal abuse	-	VA→AC→Somatization (.389)×(.157)=.061	.061
Financial abuse	-	FA→AC→Somatization (.183)×(.157)=.029	.029
Physical abuse	-	-	-
Neglect	.382	-	.382

EA: Emotional abuse, VA: verbal abuse, FA: Financial abuse, PA: Physical abuse

N: Neglect, AC: Aggressive coping, PaC: Passive coping



〈Figure 1〉 The Path diagram for elder abuse, coping strategies and consequence of elder abuse

는 간접효과($\beta=.027$)와 소극적 대처를 통한 간접효과($\beta=.0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재정적 학대를 받으면 공격적 대처나 소극적 대처를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방임, 정서적 학대, 공격적 대처로 나타났다. 노인이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할수록, 또는 공격적 대처를 할수록 신체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가 신체화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직접효과로 대상자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신체화가 높아지고, 간접효과로는 대상자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공격적 대처를 적게 하면 신체화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는 직접효과는 없으나 공격적 대처를 하여 신체화를 높이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방임이 신체화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있으나 간접효과는 없어서, 노인이 방임을 당하면 신체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학대,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학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노인학대가 학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선행연구가 미비해 연구결과의 지지정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 연구 자료는 노인학대가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전체 노인학대 경험은 5점 만점에 1.42점으로 중간치 이하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노인학대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를 조사한 Han(2000)의 연구에서 노인학대 전체경험 5점 만점에 1.58점으로 중간치 이하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노인학대 전체점수가 중간치 이하를 보이는 것은 노인학대의 원인이 가해자나 사회에 있기보다는 노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Kim, 1998)으로 보아 노인들이 학대에 대해 순응하거나 예민하게 인지하지 않아 학대 경험 정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대를 당한 노인이 학대 사실을 숨기고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어 실제 노인학대 발생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형별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Han(2000)의 연구에서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학대는 드러난 상황보다는 주관적 의미에 의해 개인의 해석이 달라지며 피해의 정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Lee, 2003) 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학대빈도

가 정서적 학대 정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노인들이 정서적 학대에 예민하게 지각하고 받아들여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들(Han, 2000; Lee, 2002)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가 학대를 당했을 때 주로 소극적 대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Cho et al., 1999; Comijs et al., 1998)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노인이 학대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를 할 경우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Seo(2000)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적실태에서 학대발생 빈도가 2-3회/주, 조사 대상자의 27.2%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25.4%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노인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omijs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언어적 학대에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면 언어적 학대가 줄거나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이 학대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6.91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60세 이상 재가노인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의심 집단 29.31점, 정상 집단 30.40점, 우울의심 집단 26.65점(Yu, Kim, & Han, 2002)이었으며, Kim 등(2000)이 합병 인식군과 정상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합병 인식군 27.13점, 정상군 28.8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우울 의심집단을 제외하고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소극적 대처를 하면 자아존중감은 더욱 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학대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해 본 연구결과의 지지정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아존중감은 노후의 심리적 적응을 채는 지표로 중요한 내적 자원(Lee & Lee, 2001)으로 자아존중감 저하는 부적응을 증가(Kim et al., 2000) 시키는 것으로 보아 학대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 시 노인의 신체·심리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은 총 30점 만점에 14.7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Jung 등(1997)이 노인 우울증 환자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제시한 최적 절단점수 18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연

구결과 44.1%(220명)에 해당하는 노인이 우울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인보호서비스에 보고된 학대당한 노인 70,797명 중 45%에 해당하는 노인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1998) 학대가 노인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나 학대결과로 인한 우울인지, 원래 우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우울이 높게 나타나(Lee, 2003) 학대가 직접적으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은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악화시켜 노인 자신과 관련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치료나 자기관리를 거부하는 자기방임(self-neglect)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Dyer et al., 2000) 학대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 유형별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방임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이 학대나 방임을 당하면 우울이 높아(Dyer et al., 2000) 진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가 언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적 학대를 받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Zhang et al., 1997)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언어적 학대를 받았을 때 공격적 대처를 하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학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신체화 점수는 60점 만점에 22.22점으로 조사되었고, 499명의 연구 대상자 중 신체화 자각증상에서 “꽤 심하다”와 “아주 심하다”로 응답한 노인이 7.2%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신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2)는 학대당한 노인 102명을 대상으로 신체화 증상을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 노인의 91.2%가 수면장애를 경험하였고, 58.8%에 해당하는 노인이 섭식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이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신체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심리적 학대가 커질수록 학대 결과로 신체화 증상이 증가(Lee, 2002)한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나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해 학대결과로 신체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학대상황에서 주로 소극적 대처 또는 공격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서적 대처기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노인학대는 노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학대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학대가 노인의 특성이나 부양자의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가족문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노인 학대를 단순히 예방하는 차원에서만 대처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재현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노인 삶의 질을 유지 증진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학대, 대처방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학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경험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 방임,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학대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은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공격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대결과로 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6.91점, 우울은 30점 만점에 14.75점, 신체화는 60점 만점에 22.22점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학대 유형에서 노인들이 소극적 대처나 공격적 대처를 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언어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대 유형에서 노인들이 소극적 대처나 공격적 대처를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직접적으로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를 당한 경우 노인들은 공격적 대처를 하여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 경험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학대 정도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도 은폐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노인학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유발요인 및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노인학대가 노인의 신체·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longitudinal study)를 실시하여 학대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하고 사전에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Action on Elder Abuse (2000). <http://aea@ace.org.uk/Main%20Webpages/Questions.htm>.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 Cho, A. J., Kim, S. G., & Kim, Y. K. (1999). *A Case Stud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Abuse*. Korea Institute Health and Social Affair.
- Comijs, H. C., Pot, A. M., Smit, J. H., Bouter, L. M., & Jonker, C. (1998).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 Am Geriatr Soc*, 46, 885-888.
- Comijs, H. C., Pennix, B. W. J. H., Knipsheer, K. P. M., & van Tilburg, W. (1999). Psychological Distress in Victims of Elder mistreatmen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J Gerontol: Psychological Sci* 54B(4), 240-24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San Francisco.
- Derogatis, L. R. (1977). *SCL-90R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yer, C. B., Pavlik, V. N., Murphy, K. P., & Hyman, D. J. (2000). The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mentia in elder abuse or neglect. *J Am Geriatr Soc*, 48(Feb), 205-208.
- Goldseon, R. M., & Glanze, W. D. (1986). *Longman dictionary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New York: Longman Inc.
- Han, E. J.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07-129.
- Jung, I. K., Kwak, D. I., Shin, D. K., Lee, M. S., Lee, H. S., & Kim, J. Y. (1997).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1), 103-112.
- Kim, B. Y., Kim, J. W., Chi, S. E., Lim, J. H., Kim, G. H., & Whang, W. W. (200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erceiving Hwabyung. *J Oriental Neuropsych*, 11(2), 141-148.
- Kim, H. G. (1998). Public Perception of Elder Mistreatment and Its Reality in Taegue. *J Korea Geronto Soc*, 18(1), 184-197.
- Kim, T. H., & Han, E. J. (1997). A Literature review abou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in Elder Abuse. *J Korea Geronto Soc*, 17(1), 51-73.
- Kim, K. I., Kim, J. H., & Won, H. T. (1984).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Co.
- Kim, S. K., & Cho, A. J. (1998).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Actual state of Family Violence in Korea*. Korea Institute Health and Social Affair.
-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2). Death by sex/age/ marital status. www.nso.go.kr/cgi-bin.
- Kwon, J. D. (2004). A Study on the Casual factors of Elderly Abuse. *J Korea Geronto Soc*, 24(1), 1-19.
- Lee, S. S., & Lee, K. J. (2001).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Health State, and Sex-role Identity on Self-esteem of the Elderly men and Women. *Korean J. of Humn Ecology*, 4(1), 1-10.
- Lee, Y. H. (2002). *A Study on the Elderly Abuse Risk Factors and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H. (2003). The Impact of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s of Elder Abuse. *J Korea Geronto Soc*, 23(2), 105-123.
- Mathney, K. A., Aycock, D. W. Pugh, J. L., Curlette, W. L., & Silva-Cannella, K. A. (1986). Stress coping: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ynthesis with implications for treatment. *Couns Psychol*, 14, 499-54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 Y. (2000). A study on Social Workers' Knowledge and the Conditions of Elder abuse. *IJWA, Spring*, 28-71.
- 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at The American Public Human Service Association. (1998). The National Elder Abuse Incidence Study; Final Report. <http://www.aoa.dhhs.gov/abuse/report>.
- Yang, O. N. (1995). *A study on Stress of the Aged and Their Supporters and Coping Strategies: Focused on the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v*, 17, 37-49.
- Yu, S. J., Kim, H. S., & Han, K. R. (2002). A Comparative Study of Physical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health-welfare need among the Aged Groups with and without Dementia and Depression. *J Korea Geronto Soc*, 22(3), 115-133.
- Zhang, A. Y., Yu, L. C., Yuan, J., Tong, Z., Yang, C., & Foreman, S. E. (1997). family and Cultural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Chinese Elderly. *Int J Soc Psychiatry*, 43(3), 199-212.

A Study of Elder Abuse in the Domestic Setting: Coping Strategies and the Consequences of Elder Abuse

Yang, Kyoung Mi¹⁾

1)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how elder abuse affected the abuse results (self-esteem, depression, somatization) through coping strategies. **Method:** A convenient sample consisted of 499 subjects from 65 to 85 years old.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uly to August, 2002. The SPSS WIN 10.0 version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pathway of elder abuse affecting elder's self-esteem was researched by passive coping, emotional abuse, financial abuse, and physical abuse as the variables that directly affected self-esteem. The pathway of elder abuse affecting elder's depression was researched by passive coping, aggressive coping, verbal abuse, and neglect as the variable that directly affected depression. The pathway of elder abuse affecting somatization was researched by neglect, emotional abuse, and aggressive coping as the variables that directly affected somatization. **Conclusion:** We should develop a systematized intervention program so that elders can learn positive coping in their abuse circumstance.

Key words : Elder abuse, Self-esteem, Depression, Somatiz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K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419, Sungnamri, Muan-eup, Muan-gun 534-701, Korea.

Tel: +82-61-450-1807 Fax: +82-61-453-4567 E-mail: Kmyang@chodang.ac.kr